

한화, 경기도에 바이오밸리 조성

화학·제약·의료 포함 첨단기업 입주 ... 2010년 1월 유치활동 본격화

한화가 경기도와 손잡고 바이오밸리 조성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11월10일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생명산업 특화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문수 지사와 최영근 화성시장, 정승진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가 공동 서명함으로써 한화그룹은 2012년 말까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대 1.74km² 부지에 57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경기화성 바이오밸리를 조성해 분양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에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화학, 기타 첨단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2010년 1월부터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6월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0>